

[SS133]

개발도상국들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 제한적 자원을 이용한 실용적 해결책

주제: 산업보건 및 개발

날짜: 6월 2일(화)

시간: 16:00-17:30

장소: 318A

좌장: Stavroula Leka (영국) , Diana Gagliardi (이탈리아)

책임자: Shyam Pingle (인도)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의 중요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 상황은 제한적인 자원 가용성과 심리사회적 장애로 인한 오명을 감안하면 매우 까다롭다. 이는 혁신적인 해결책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이 세션은 개발도상국들의 특이한 상황을 논의한다. 박식한 전문가들이 흥미있는 실천사례 연구를 공유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 멕시코 사례

Horacio Tovalín Ahumada

Especialización en Salud en el Trabajo–Occupational Health Specialization,
Facultad de Estudios Superiores Zaragoza, UNAM, 멕시코시, 멕시코

멕시코는 세계의 주요 경제권 중 하나가 되고 있지만, 70년 동안의 권위주의 정권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높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산업보건의 개발과 특히 사회심리학적 위험 조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결국 점증하는 관심을 갖고 있다. 멕시코에서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에의 직업적 노출 범위 검토와 건강에 미치는 보건 영향의 추정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위험 통제와 근로자들의 감정적인 안녕의 촉진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적 진전을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 및 기업 사업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정부, 노동조합 및 전문직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복잡한 경로가 있었다. 끝으로 주요한 에너지 기업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공적인 경험을 설명한다. 이 기업에서는 이 근로집단에 적용되는 특정한 방법을 개발하고 개조하였으며, 심리사회학적 위험을 근절하고 억제하는 참여 모델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개입의 개발 및 평가를 수립하였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적 해결책에 의한 노동력에 미치는 보건 영향 방지 전략

Sivaramakrishnan S

생활습관병 상담사, 상담사, SAP India Limited., 뭄바이, 인도

개발도상국들은 세계화로 인한 전환 단계를 겪는다. 조직들은 충성도 기반 방식에서 성과 기반 방식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변화는 심리사회학적 위험을 부가한다. 이 단계는 조직적, 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및 생활방식 변화를 수반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반응적 습관의 정신상태로부터 선제적 습관으로 변화하여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의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 직장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직 조사는 변화하는 작업환경을 기록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그리고 감시하는데) 중요하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와 특히 직장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변화하는 환경도 변화하는 생활 방식에 대단한 영향을 주어 생활습관병 발생을 증가시킨다. 본 자료는 심리사회학적 위험과 결과를 개관하며, 이는 심리사회학적 위험관리에 대한 권고사항 정책을 식별, 제정하고 조기개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OHS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조직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전망하고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또한 병적상태 및 사망률의 전체적인 감소로 의료비 절감, 양호한 성과 및 생산성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또한 직장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이를 극복하는 치유를 제공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다루고 OHS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과 로드맵 작성에 있어서 산업보건 의사의 역할을 제공한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직장생활 개선 WISH 프로젝트

R Rajesh

의료 서비스, Reliance Industries Limited, 뭄바이, 인도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세계는 산업과 서비스가 개발도상국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왔다. 심리사회학적 위험의 잠재적 건강영향과 조치를 위한 기초적인 우선과제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도상국들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과 작업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애물과 해결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지식은 선진국들의 지식에 필적하지만, 지식의 실무적 적용성은 여전히 선진국들을 따라가야만 한다. Reliance Industries는 2011년 5월에 Resilience 경영의 일환으로서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문화와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을 창출하여 그들의 안녕을 제고하는 야심적인 계획인 "WISH"(Work-life Improvement for Safety and Health, 안전보건을 위한 직장생활 개선)를 시작하였다. 주요한 난제는 선교사와 사례 파악 및 심리분석을 개발하는 것이다.

"WISH" 프로젝트는 모든 장소에서 지도자 파악, 명성있는 교수진에 의해 식별된 집단을 위한 특별 워크숍, 모든 장소에서 선교사 개발(다양한 장소들에 걸쳐서 360명 이상 선교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중 스트레스 질문서(DASS 21) 도입, 고위험 집단 식별, 식별된 집단을 위한 상담 및 안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신체 정신 관계 및 감정에 관한 프로그램, 사내 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추적조사 및 상담과 같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 및 지속가능성으로 인하여 고무적이다.

- 무형적 이익: 개선된 직장문화, 가족들로부터 압도적인 반응, 개선된 종업원 도덕, 감소된 병가, 생활습관병 억제

심리사회학적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달경로 및 실행 패러다임은 작업환경에만 초점을 둔 쟁점을 벗어나서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보다 큰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정황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작업관련 심리사회학적 위험과 작업관련 스트레스의 부상하는 우선과제는 개발도상국들의 연구 및 정책적 의제와 실행 기틀에 긴급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 평가에 대한 참여적 접근법 연구

Diana Gagliardi, Di Tecco C., Mirabile M., Di Nunzio D., Delaria I, Iavicoli S.
직업환경의학, 역학 및 위생, INAIL 이탈리아 근로자 보상청, Monteporzio Catone,
로마, 이탈리아

서론:

직업관련 스트레스는 유럽에서 생산성에 주요한 장애물이며, 근로자들 사이에서 심리사회학적 노출에 의해 야기되는 작업조건 문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 및 직장 차원의 사회적 협력자의 참여는 작업조건 개선에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건강 및 안녕에 추가적인 긍정적 영향을 준다.

2013년에 유럽위원회의 고용, 사회문제 및 포용 DG는 건강한 노동조직을 달성하고 근로자 건강, 안녕 및 권리 개선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적 심리사회학적 위험 예방 절차에서 구체적인 장애물 및 견인차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자료:

4개의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각국은 협력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3가지 사례연구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연구에 대해서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에 해당되는 문서를 수집하였고, 최소한 각각에 대한 1명의 관리자와 1명의 근로자 대표가 심도있는 전화면담을 위해 선정되었다.

방법:

심리사회학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해당 문서의 자료분석이 실시되었다. 전화면담은 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들에게 실시하여 과정의 각 단계에서 근로자 대표의 참여 수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회사 차원에서 심리사회학적 위험 평가 및 관리 방법을 파악하였다.

결론:

각국 사례연구의 결과분석과 국가들 사이의 조사결과 비교를 통하여 심리사회학적 위험평가 및 관리에 대한 참여적 접근법의 주요한 견인차와 장애물을 파악하고 과정을 개선하고 양호한 작업조건을 달성하는 권고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Practical Solutions with Limited Resources

Topic: Occupational Health and Development Date : June 2 (Tue.)

Time : 16:00-17:30

Location : 318A

Chair : Stavroula Leka (United Kingdom) , Diana Gagliardi (Italy)

Responsible Person : Shyam Pingle (India)

Importance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has now been recognized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 sit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very challenging given the availability of limited resources and the stigma attached with psychosocial disorders. This calls for innovative solutions and approaches. This session discusses the peculiar sit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earned experts will also share interesting practical case studies.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MEXICO.

Horacio Tovalin Ahumada

Especializacion en Salud en el Trabajo-Occupational Health Specialization, Facultad de Estudios Superiores Zaragoza, UNAM, Mexico city, Mexico

Mexico is becoming one of the world's major economies, however for historical situations related to a type of authoritarian regime for 70 years and its high social inequality, the development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in particular the surveillance of psychosocial risks has been limited, but this topic has an increased increasing in the last times. A review of the extent of occupational exposure to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Mexico and an estimate of their health effects on health is presented. In addition, it is reviewed the existing regulatory progress in the control of psychosocial risks and promotion of emotional well-being of workers, and are presented different government and companies projects that have being developed in this area will be presented. Just as the complex path that has been taken to bring about an agreement between the companies, the government, unions and professionals to prevent these types of occupational risks. Finally,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implementing a surveillance system of psychosocial risks at a major energy company will be presented. In this company was developed and adapted a specific battery to be applied in this working population, and it was

established a participatory model for the elimination and control of psychosocial risks and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of workers.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ITS IMPACT ON WORKLIFE AND STRATEGIES TO PREVENT HEALTH IMPLICATIONS ON WORKFORCE WITH PRACTICAL SOLUTIONS

Sivaramakrishnan S

Lifestyle Diseases Consultant, Consultant, SAP India Limited., Mumbai, India

Developing Countries go through the transitional phase due to Globalisation. The Organisations have moved from the mode of Loyalty based to performance based and this change adds to psychosocial risk. This phase carries Organisational, environmental, cultural, psychological and worklife change.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come out from mental state of reactive behaviour to proactive behaviour to counter the impact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Organisational surveillance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is important to record the changing work environment and for the development (and monitoring) of policies and programs to prevent stress and promot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well being at work. Psychosocial risk factors has impact on Mental Health and Stress at in general and Workplace stress in particular. The changing environment also has a great impact on changing lifestyle and thereby increasing the presence of Lifestyle diseases. The presentation overviews psychosocial risks and outcomes. Recommendations for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The role of OHS in identifying, setting policies and implementing early interventions. It will project methodology to evaluate Organisational Stress levels and provide solutions. It would help employees identify their stress levels and provide solution for individual modifications. It would provide Healthcare cost reduction, better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with overall reduction in Morbidity & Mortality. The presentation will also cover the impact on Worklife

balance and provide remedies to overcome. It would also cover case studies and provide practical solutions for OHS and the role played by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in drawing the road map.

PROJECT WISH - WORK-LIFE IMPROVEMENT FOR SAFETY AND HEALTH

R Rajesh

Medical Services, Reliance Industries Limited, Mumbai, India

Over the past decades, the world has seen a shift of industry and services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es on knowledge of potential health impact of psychosocial risks and preliminary priorities for action, and need to discuss potential barriers and solutions to addressing psychosocial risks and work-related stress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y experts' knowledge about these issues is comparable to knowledge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however, practical applicability of knowledge still has to reach up to developed countries.

We at Reliance Industries have started an ambitious Project "WISH" (Work-life Improvement for Safety and Health) in May 2011 across locations with a focus on Emotional Health as a part of Resilience Management and to create a culture of health and vitality that empowers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their well-being. While the main challenge is to develop missionaries as well as identification and psychoanalysis of cases.

Project "WISH" has been implemented in systematic and phased manner like Identification of leaders from all locations ,Special workshop for identified group by renowned faculty, Developing a Missionaries at all locations – more than 360 missionaries across various locations, Introduced stress questionnaire (DASS 21) analysis during periodic medical check-up, Identified High risk groups, Consultation and guidelines for identified group as well as specialized program for them Program on Body mind relations & emotions, Regular follow up & consultation by company physician.

Results are encouraging due to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Intangible benefits: improved work culture, overwhelming response from family members,

improved employee morale, reduced sickness absenteeism, control of life style diseases. The forward path and action paradigms in relation to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will need to be broadened to include the large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in developing countries beyond issues focusing solely on the working environment. Work-related psychosocial risks and the emerging priority of work-related stress should urgently be included in the research and political agendas and action frameworks of developing countries.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approach to psychosocial risks assessment in southern Europe countries

Diana Gagliardi, Di Tecco C., Mirabile M., Di Nunzio D., Delaria I, Iavicoli 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pidemiology and Hygiene, INAIL Italian Workers' Compensation Authority, Monteporzio Catone, Rome, Italy

Introduction:

Work-related stress is major obstacle to productivity in Europe and working conditions problems caused by psychosocial exposures among workers are rapidly growing; the involvement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s well as social partners at national, local and workplace levels would be crucial to the improving of working conditions, with a further positive impact also on workers' health and wellbeing.

In 2013 the European Commission's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DG funded a research project aimed at identifying specific barriers and drivers in participative psychosocial risk prevention processes to achieve a healthier work organisation and to enhance their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workers' health, wellbeing and rights

Materials:

Four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pain, France, Italy and Turkey) participated in the project. Each country selected three case studies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agreed among the partners. For each case study, relevant documents on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cedures were collected and at least a manager and a worker's representative for each one was selected for in-depth telephone interviews.

Methods:

Desk analysis of the relevant documents on procedures to assess and manage psychosocial risks was conducted. Telephon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manag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to understand how psychosocial risks were assessed and managed at company's level with a special focu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each phase of the process.

Conclusion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each country case studies and the comparison of findings among countries allowed to identify the main drivers and barriers to the participative approach to psychosoci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to draft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process and achieve better working conditions.